

경기신문

2021. 03. 18 (목)  
제100호

## DMZ마을박물관 사업이 가져온 마을의 '정체성' 그리고 '소중한 자산'

### 경기특부 문화로 다시 정의하다

- ▶ 2019년 전국적 특성 있는 지역별 특색
- ▶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유산(무형유산)
- ▶ 문화, 그레고리안력, 풍조, 풍습
- ▶ 전통공예, 전통예술, 전통 민속, 민속놀이
- ▶ **11 평화교육, 마을박물관 - 동두천 특색, 파주 마장동**
- ▶ 문화유산

왜 마을이란 지역의 어떤 역사를 고집이 내 나진 왜 우리를 구경하러 온대, 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며 발전하는 거 아니야? 등등 DMZ도시'를 대상으로 한 마을박물관 사업 초기엔 해도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보습들은 계기가 달랐지만, 해를 외면하고 싶을 만큼 쓰린 심정은 배척가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굳이 일부러 꺼내서 보여주지, 그것도 마을 자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팔아 버리는 거 아니냐. 쇠라한 지역에 이미지가 안 되니까는 게 아닌가 하는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로소 주민들이 이해의 단계를 넘어 포용해나가기 미스를 되찾아 가고 있는 중이다. 아픈 역사지만 그저 달달히 배워볼 때, 그것은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마을의 자존과 위대함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예술과 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희망이 불씨를 살리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모든 의견이 가까이 존중되면서 차근차근 전쟁과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로부터 알려져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서 논의가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누구는 금세 동전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누구는 시시히 마을을 열었고, 누구는 아직도 거창히 마을을 온전히 내리놓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사두를 잃어 갔다. 외부의 힘에 의해 억지로 타락하게 해서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경기문화재단(이하에서 경원)의 '자존감' 행보는 거의 비수열을 만드려고 생각된다.

동두천 탁기리마을을 열도록할 이상을 만들고 있는 김원호 원장의 인터뷰는 "전쟁 없는 마을 경제 뜻이 우리 마을 자체 박물관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셨다"며 "좋은 점도, 또 지역과 다른 경험들을 한 것이고, 멀리 보면 약행이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침묵 의견이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 동두천 탁기리마을박물관 - 이끈 거가기 한은 특 특한 문화

미국까지 갔다 쇼비와 질문이 워낙한 오 애 관해는 동두천 그 어느 지역보다 크게 호응을 누렸던 곳. 그러나 지금은 사범의 발달이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 바로 '탁기리마을'이다. 동두천의 외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60-70년대 양파 재배를 명성해 하는 초창기엔 마을, 전쟁적인 거창에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네 역사 박물관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곳에서 관광할 양지 소리가 울려나오고, 거창음이 울려나오며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번 건물들로 보이는 여간가에서, 마치 불타오르듯 거창했다는 듯이 말이다. 인근에서 한 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신 한 분은 "이제 사람 구경 할 수 있으니까"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시작된, 경기문화재단의 마을박물관 1호인 탁기리마을박물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때 모습이다. 박물관 건물은 1933년 사용이거기 난 이후 구멍가게의 거창으로 이은신씨가 1972년 중추 후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파는 작은 클럽 '블루스'로 운영했다고 한다. 이후 2008년 카페 '빙' 재래적 건물을 새로 영입을 하러 왔으나 주거



한은 특이한 마을박물관으로 '제1회 순서'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탁기리마을박물관 내부 모습. 파주 마장동 마을박물관 '평화촌전시' 내부 모습. 동두천 탁기리마을박물관 건물. 파주 마장동 마을박물관 '평화촌전시'의 지원이민 노력이 DMZ마을전시(사)가 박물관의 집합체로, 동두천 탁기리마을박물관의 지원이민 활동은 전례 없는 일이다. (사진 - 김원호 기자)

### 아픈 역사 고집야하는 DMZ마을박물관 쇠라한 마을이미지에 사업 거부도...

### 별길 끊어진 동두천 '탁기리마을' 미군들과 관계 속 독특한 문화 형성 "마을 담보채널 문화적 특질 될 것"

### 파주 마장동 마을박물관 '평화촌전시' 대피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주민들 삶 기록한 '손업길' 표상화

### 김원호 2019년 11월, 드디어 마을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탁기리마을박물관의 지원이민, 김원호 선생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다가 차 한 잔 하러 오시는, 사담만 같은 대화를 하기도 한다고 이곳을 소개했다. 이 자의 인터뷰 그는 "여기가 거창이다 보니까 내가 자랑 때는 번도 낫았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에 사람도 별로 없고, 여가기도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마을이 생기면서 여기서 자란 사람들도 있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다. 특히 요즘은 다들 어르신들이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훑을 텐데 하고 오더라 서운해 하신다"고 말했다.

김원호 인터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파운 문화의 경제 속에서 형성된 문화가 우리가 재는 것이다. 휴지는 뒷맛이 맛있게, 드래곤을 기 애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을 잘 활용하면, 미래를 담보채널 수 있는 문화적 특질에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마을박물관이 들어서기 전, 탁기리마을은 잊혀진 곳이었다. 그래서 옛날 흔적들을 더 잘



이 가지도 있을 수 있었다는데, 모포족 여사는 역사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중국어까지 접 사담내의 들은 통기는 활기찬 마을로 거듭 나길 바란다.

파주 마장동 마을박물관, '평화촌전시' - 대피소 문화공간으로 "제1회 들어 만들었는데, 1년 내내 비워주는

문단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이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다.

'평화촌전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삶을 기록 해지는데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손'과 '업'으로 표상화됐다. 주민들이 고된 삶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징으로 '손'과 '업'을 표현한 것이다.

'평화촌전시'의 지원이민 노력이 DMZ재단 보전사민대피소의 집합체로, "영토 계획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나온 '대피소'에 하생들이 중심이 돼 마을 주민들이 열광 사담과 식고 손을 편사하고 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자리에 거주하는 장순열 자가를 급격히 접하여 작업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17일 개관한 '평화촌전시'는 원래 대피소의 민방위 주민 대피소로, 지난 2015년 지하 1.5층에 40여 평 규모로 조성된 민방위를 새롭게 꾸며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위협에서 도발 사건이 발생, 마을 주민들이 안 된 화보가 사담한 상황이었다. 한국군 부사관 장영이 다리가 잘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군 당국이 응급 차원에 대해 방송을 했고, 이에 북한이 화보 도발로 맞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이다.

다행히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아니었다. 그리고 4명의 한양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박물관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사업과 내용은 주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는 밑바탕이 됐다. 노력이 자라면서 "일은 대피소라고 하는 게 주민들 모두가 어딘지 않고, 문화유산에 대한 건 계속 묻어 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대피소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들 것 같고 해서 방법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을의 마을박물관인 '평화촌전시'는 원형이면서, 아직 미완성이다. 문화로 소망하는 마을을 양면 총괄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마장동 이야기를 쓰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원 김원호 기자)